

# 영암군수, 전동평 군수 '마의3선' 넘을 수 있을까

### 민선 출범 이후 3선 군수 단 한명도 없어 민주당 7명, 정의당·무소속 1명씩 출사표 고위공무원·지방의원 출신 등 이력 다양

오는 6월 치러질 전남 영암군수 선거는 현 전동평 군수의 3선 달성 여부가 최대의 관건사로 떠오르고 있다. 영암군의 경우 그동안 일부 재선 단체장의 3선 도전이 있었으나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영암군수 출마 예정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동평 군수를 비롯해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우승희 전남도의원,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 전동호 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조성남 세한대 교수, 최영열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정의당 이보라미 전남도의원과 무소속 박소영 전 목포부시장 권한대행 등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동평 현 군수는 4선의 전남도의원과 재선 군수 등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 1991년 29세의 최연소 전남도의원 당선 기록을 남겼다.

전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일태 전 군수를 누르고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8년 동안 무리없는 군정 수행과 지역내 탄탄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전 군수의 3선 도전에 맞설 민주당 경선 경쟁자로는 고위 공무원 출신과 국회와 지자체·지방의회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 교수 등으로 구분된다. 공무원 출신으로는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전동호 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이다.

배 전 부지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30여 년 동안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이다. 그는 최근 출마 기자회견에서 "군정 최우선 목표는 군민 소득 증대"라며 "영암 100년의 미래를 여는 신영암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명예퇴직한 전동호 전 전남도 국장도 경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암 400여 곳이 넘는 마을을 직접 돌아보며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전 전 국장은 "이제 새로운 영암의 시간을 준비할 차례"라면서 "행복한 복지, 편안한 교육, 건강한 성장, 안전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의 오지라 할 수 있는 금정면 출신인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은 지난해 9월 '영암발전정책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이번 선거가 영암군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영암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성남 세한대 교수도 경선에 나선다. 공공환경디자인과 전시디자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새로운 영암을 디자인해 보겠다는 포부다. 조 교수는 "바다 민심 살피고 다닌다"는 말로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재선 도의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젊은 변화, 혁신 영암"을 기치로 '혁신 영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낡은 관행과 탁상행정으로는 혁신 영암을 열 수 없다"면서 "기득권을 과감히 혁파하고 청탁과 비위 등 지역의 고질적인 병폐도 과감히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최영열 전 실장은 현재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출마의 변수가 되고 있다. 최 전 실장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8년전 군수에 출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최 전 실장은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민들과 만나 왔다. 그는 "전남도와 국회보좌관 등의 경험을 살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정의당 이보라미 전남도의원과 무소속 박소영 전 목포부시장 권한대행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과 비전을 발표한 뒤 표발을 누리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자 출신으로 재선의 영암군의원을 거쳐 전남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전남도의원은 "영암군민께 청혼한다"는 말로 출마의 변을 대신했다. 이 전남도의원은 "포용과 협치의 군정, '지속가능한 자립형 도시'의 첫 번째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전 목포부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18년 영암군수 선거에 출마한 경력 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 도전이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지난 선거에서는 30%가 넘는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 전 권한대행은 "그동안 논밭과 생업현장을 누비며 군민들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어 왔다"며 "영암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전국 최고 득표율' 영광군수 3선행 대항마는?

### 출마자 당초 8명서 민주 3명·무소속 1명 압축 '전국 최고 득표율' 김준성, 여전히 지지 탄탄 피선거권 회복 김종만 전 군수, 무소속 재도전

6·1 지방선거 전남 영광군수 선거는 '내리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준성 현 군수에 맞서는 전직 군수, 도의원, 대학교수 간 대결이 될 전망이다.

김준성 군수에 도전장을 내민 출마예정자들은 당초 7명에 달했지만,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와 민주당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같은 당 소속의 장현 송원대 교수로 최종 압축됐다. 그간 출마가 유력시되던 이장석 도의원은 지난 20일 김 군수와 마라톤 회동 끝에 경쟁보다는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하고 다시 도의원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장세일 도의원은 도의원 선거에 재도전하며, 한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과 박준화 영광농협조합장은 출마를 포기했다.

출마예정자 중 가장 먼저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85.02%)로 당선된 가운데 여전히 탄탄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지역 전략산업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인구 늘리기 성과로 꼽히는 '3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불갑사 관광지 확장사업 추진' 등 민선 6·7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도·부패방지 평가에서 2관왕을 달성하는 등 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킨 것도 눈여겨볼 성과다. 3선에 도전하는 김 군수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더 발전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농업은 '스마트 팜'으로 발전시키고, 종교·역사자원, 자연경관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인구 절벽의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는 강종만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민주당 텃밭에서 민선 4기 무소속 군수로 당선된 뒤력을 밑바탕으로 두 번째 무소속 군수에 도전한다. 그는 2008년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중간에 군수직에서 낙마했다가 2월 피선거권을 회복한 이후 권도중래(權土重來)

를 다짐하고 있다. 강 전 군수의 재임 기간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년이 채 안 된다. 재임 기간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시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공무원과 그 가족의 주소지 이전'이었다.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가족들에 대해 거주지를 영광으로 옮길 것을 강조하고,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강 전 군수는 "군민 간 갈등이 심화 되는 현안에 군수의 우유부단한 행동은 영광군민을 실망하게 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주) 해수사용 문제, 가축사육 거리제한 문제, 쓰레기 대란, SRF(생활폐기물 고형연료)발전소 문제 등 영광군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외면하다가 소모적 논쟁만 가중했다"고 현 군정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타 지자체보다 뛰어난 천혜의 자원을 품은 영광군을 스마트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이다. 인생의 주어진 마지막 소임으로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이다. 주요 공약은 '사회적 갈등 사안 군수 주도적 해결', '군수가 주재하는 수시 자유토론을 통한 군민과의 소통 강화', '실효성 없는 사업 축소·폐지', '원전 지원금과 지방세를 활용한 경제발전계획 수립', 'SRF 발전소 문제해결과 갈등치유' 등이다.

3선 도의원을 지낸 민주당 소속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도 지지세를 결집해 나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영광의 기본 좋은 변화를 이끌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 12년간 도의회에서 쌓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본부장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얻은 농업 분야의 해박한 지식도 빼놓을 수 없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 전 의원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더불어 행복한 영광, 다 함께 잘사는 영광, 군민 주인 시대를 함께 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 공약은 '특정인·특정 세력·특정 정치 차단을 통한 군민 화합',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농업인보육센터 운영', '교육 소비자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게 아이 키우는 영광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수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 500만 시대 실현' 등이다.

그간 영광에서 국회의원과 군수 선거에 각 두 번씩 총 4번 출마해 모두 2위로 낙선한 정치학 박사 출신의 민주당 소속 장현 송원대대학교 교수도 정중동 지지층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장 교수는 출마예정자 중 이력이 가장 화려하다.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을 비롯해 광주 CBS 뉴스매거진 앵커, 광주광역시장 정부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역대 선거에서 정당도, 조직도, 자금도 없지만 군민



들의 아낌없는 기대와 사랑을 받았다"며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표시했다.

장 교수는 25년 경력의 대학교수 외에도 광주시장 정부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지방정부와 국회, 정부, 언론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또 200여 임직원을 이끄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며 행정과 경영 경험을 두루 쌓았다.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는 총학생장을 역임했고 모교 교우회 부회장직 수행 등을 통해 정관계는 물론 경제계 등 각계각층에 최상급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의한 새로운 세수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 교수는 "영광을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국 지방자치의 롤모델을 만들어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b>호남신문</b> 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b>김 평 호</b> 편집국장 <b>직무대리 서 선 옥</b>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b>충효로 63 가동 2호</b>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b>공릉로 62가길 16-1</b>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만 길지않은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적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